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9월 3주~9월 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 기준금리 0.25%p 인하, 물가 안정에 따른 완화 기조 지속(9.3)
 - 폴란드 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는 9월 3일 기준금리를 기존 5.00%에서 4.75%로 25bp 인하
 - 앞서 MPC는 올해 5월 50bp, 7월 25bp 인하를 단행, 이번 조치로 2023년부터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
 - 이번 금리 인하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.8%까지 하락하며, 물가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
 - 글라핀스키 중앙은행 총재는 "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 역시 둔화 국면에 있다"며, 현재의 경제 여건이 완화적 조치에 적합하다고 평가
 - 중앙은행은 2023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총 100bp 인하하며, 2021~2022년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 사이클의 종료를 공식화
 - 향후 금리 조정은 폴란드 내 경기 흐름, 에너지 가격 변동, 유럽 중앙은행(ECB)의 정책 방향 등 대외 요인을 종합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
- 폴란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.9% 기록(9.15)
 - 통계청(GUS)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 동월 대비 2.9% 상승했다고 발표, 이는 잠정치(2.8%)보다 0.1%p 상향 조정된 수치
 - 7월 물가상승률은 3.1%, 6월은 4.1%로, 최근 완만한 둔화세 지속
 - 통계청은 2025년 CPI 산정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조정할 바 있음
 - 정부는 8월 확정된 2025년 예산안에서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3.1%로 전망

- 중앙은행은 7월 발표한 최신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2025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3.9%, 2026년 3.1%, 2027년 2.4%로 예측
- 당초 기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나,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(2.5%)를 상회해 긴축 기조 유지 여부 주목됨

○ 폴란드 2026년 최저임금 3% 인상 발표(9.16)

- 폴란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3% 인상, 월 4,806즈워티(약 182만원)으로 책정한다고 공식 발표
- 최저시급은 31.40즈워티(약 1만2천원)로 인상되며, 이는 재무부가 제안한 안으로 사회대화협의회*에서 합의 불발 후 결정된 것
- * Rada Dialogu Społecznego(사회대화협의회) : 노동자, 사용자(기업), 정부의 3자 대표가 모여 노동 시장, 임금, 복지, 경제정책 등 주요 사회·경제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협의하는 기구
- 노동조합은 최소 5,015즈워티(약 193만원) 이상을 요구했으나, 사용자 단체는 정부 결정을 타협안으로 평가
- 2025년 초 월 최저임금은 4,666즈워티, 시급은 30.50즈워티이며, 7월 기준 폴란드 평균 월급은 약 8,905즈워티(약 343만원)임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2025년 1~8월, 우크라이나 총 무역 규모 789억 달러 기록(9.16)

- 우크라이나 관세청에 따르면, 2025년 1~8월 기준 무역 총액은 789억 달러(약 110조원)로 집계, 이 중 수입 526억 달러, 수출 263억 달러
- 전체 수입 중 400억 달러(76%)는 과세 대상 물품으로, kg당 평균 과세액은 0.52달러
- 주요 수입국은 중국(116억 달러), 폴란드(50억 달러), 독일(42억 달러) 순
- 주요 수출국은 폴란드(33억 달러), 튀르키예(20억 달러), 독일(15억 달러) 순
-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·장비·수송 수단이 207억 달러, 화학제품 83억

달러, 연료·에너지 자원 67억 달러 기록

- 수출 품목별로는 식품류가 146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, 금속 및 금속제품(30억 달러), 기계·장비·수송 수단(25억 달러) 등이 뒤를 이음
- 수출 품목 중 관세 부과 대상 수출품 통관을 통해 국고에 174백만 흐리브냐(약 58억원) 세입 발생
- 2025년 1~7월 기준 무역 총액은 691억 달러였으며, 8월 한 달간 약 98억 달러의 무역이 추가된 것으로 분석됨

○ IMF, 우크라이나에 GDP 30% 규모 '그림자 경제' 해소 촉구(9.15)

- IMF는 최근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에서 GDP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그림자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
- 우크라 재무위원회 헤트만체우 위원장은 연간 최소 29,000억(약 30.2조원) 규모의 비공식 경제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언급
- 이는 IMF의 지속적 재정 지원 조건 중 하나로 거론됨
- 유럽기업협회(EBA)는 G7 국가들에 불법 담배 유통망 해체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법 집행기관 지원을 요청
- 주요 불법 품목은 담배, 전자담배, 액상 니코틴 등으로, 업계는 적발·처벌 강화 및 제재 확대 필요성 강조
- ICC(국제형사재판소) 우크라이나 지부 또한 IMF 우크라이나 지역 대표에게 불법 담배 유통에 대한 IMF 차원의 대응 강화를 요청
- IMF의 개입이 그림자 경제 억제 및 국가 재정 수입 확대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○ 우크라이나, 산업단지 수 증가세이나 2β는 미가동 상태(9.16)

- 우크라 경제부에 따르면, 지난 3년간 산업단지(Industrial Parks) 등록 수가 두 배로 증가, 현재 총 105개 등록, 30개는 심사 중
- 이 중 3분의 2는 여전히 미가동 중이며, 실제 가동 중인 단지는 약 1/3에 불과, 이마저도 대부분 1~2개 가공업체 입주 수준
- 주요 문제는 생산시설 개발 지연으로, 계획만 존재하고 실질적

투자가 미진한 단지가 다수

- 반면, 드니프로시 소재 'Innovation Forpost 산업단지'는 3,500m² 규모 공장 2동 리노베이션 완료 단계, 식품업체 2곳과 입주 협의 중
- 해당 산업단지는 267백만(약 22.5억원) 투자 완료, 2026년 봄까지 추가 23.1억(약 104억원) 투자 계획 중이며, 16.5MW 변전소 건설진행 중
- 현재까지의 민간투자 규모는 약 260억(약 201억원) 수준으로 추정되며,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가 관건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폴란드, EU로부터 437억 유로 규모 국방 대출 지원(9.9)

-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유럽연합의 새 국방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SAFE를 통해 약 437억 유로(약 71.7조원) 규모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
- 해당 자금은 폴란드의 항공 및 미사일 방어, 포병 체계, 탄약, 드론·대드론 기술, 사이버 방어 등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입 예정
- 국방부 장관은 “SAFE 프로그램 최대 수혜국”이라 강조
- 대출 상환은 자금 분배 후 10년 후부터 시작, 국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
- SAFE 프로그램은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을 맡으며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,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유럽 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
-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11월 말까지 국가별 투자 계획 제출 요청, 자금 집행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전망
- 국방부 장관은 SAFE가 NATO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수단임을 강조, 우크라이나와의 공동 국방 프로젝트 추진 의지도 표명

○ 폴, 나레프 방공체계용 패시브 레이더 58억 즈워티 규모 계약 체결(9.3)

- 폴 국방부는 나레프 방공·미사일방어체계(Narew)에 통합될 패시브 레이더 46기 도입을 위한 58억 즈워티(약 2.3조원) 규모 계약을 체결
- 계약은 확정 물량 28기와 옵션 18기로 구성되며, PGZ-NAREW 컨소시엄이 공급, 핵심 제작은 폴란드 방산업체 PIT-Radwar가 담당
- 국방장관 코시니악-카미시는 “이번 계약은 폴란드 안보와 방산 산업, 일자리에 대한 전략적 투자”라고 강조
- 확정 물량은 약 39억 즈워티, 옵션은 약 19억 즈워티 규모이며, 납품은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
- 도입되는 레이더는 전파를 송신하지 않는 패시브 방식으로, 적에게 탐지되지 않으면서 지속적 공중 감시가 가능하며, 다양한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이 적용
- 이와 별도로, 국방군수청은 루츠니크-라돔과 MSBS ‘그로트’ 소총 최신형 2만3천정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, 지금까지 폴란드 군에 누적 16만 정 납품
- 베이다 국방차관은 이번 계약이 “현대적 군대 완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”이라 평가하며, 국산화 중심의 전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함

○ 나브로츠키-트럼프 정상회담, “미군 주둔 지속·대리 제재 강화” 외교 공조 확인(9.4)

-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,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폴란드 내 미군 주둔 지속 방안 등을 논의
- 트럼프 대통령은 “폴란드는 미군의 더 많은 주둔을 원해왔다”며, “그들이 원한다면 더 보낼 수 있다”고 밝혀 주둔 철수설을 일축, 증원 가능성도 시사
- 현재 폴란드에는 약 8천명의 미군이 주둔, 포즈난에는 미 육군 V 군단 본부가 위치해 NATO 동부 전선 억지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
-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회담 후 “푸틴이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만 대화하며, 트럼프는 푸틴과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”라고 언급

-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본질적 위협으로 규정하며, 추가 대러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
- 투스크 총리는 이번 회담에 대해 “미군 철수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메시지”라고 평가, 코시니악-카미시 국방장관은 “전략적 폴-미 동맹의 강고함을 입증한 선언”이라고 언급

○ 폴란드, 러시아 드론 영공 침범에 NATO 조약 제4조 발동(9.10)

- 투스크 폴란드 총리, 9일 밤 우크라이나 공습 중 발생한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NATO 제4조* 발동 공식 선언

* EU 회원국이 위협을 받았을 때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으로, 군사 행동을 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, 상황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시작하는 조항

- 드론 총 19기 폴란드 영공 침입, 이 중 일부는 벨라루스를 통해 진입했으며, 이는 전면 침공 이후 최초 사례
- 폴란드군, 위협으로 간주된 드론 최소 3기 격추 및 1기 추가 격파 추정,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
- 투스크 총리 “절차 상 완벽 수행했으며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” 강조, 잔해 접근 자제 요청
- “이번 사태는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 충돌에 가장 근접한 상황”이라 평가, 다만 “전쟁 상태는 아님”이라 명시
- NATO 제4조 발동은 대통령과 공동 결정, 향후 미국 등 동맹국과의 긴밀 협력 예고
- 러-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 ‘자파드-2025(Zapad-2025)’가 폴란드 인접 지역서 9월 12일 개시 예정으로, 추가 긴장 고조 우려
- 폴란드는 2022년 이후 영공 침범 사례는 있었으나, 다수 드론에 실탄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
- 투스크 총리는 “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, 자유 세계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”이라며 국제적 대응 촉구

○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, 중국 방문 초청 수락(9.16)

- 시코르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중국 외무장관 왕이의

초청을 받아 중국 방문 확정

- 9월 15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G20 가입 희망을 논의, 중국은 환영 의사 표명
- 3시간 동안 열린 폴란드-중국 전략적 대화에서 양국 관계와 무역 협력 논의
- 중국 외교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6년 만에 처음이며 양국 정치적 대화 강화 의미
- 가금류 수출 지역화 원칙 합의에 따라, 폴란드 제품이 中시장에 재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음
- 시코르스키는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 강조, 러시아의 불안정 행위와 폴란드 영공 침입 드론 문제도 제기
- 왕이는 폴란드의 평화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, 관세 정책 남용을 반대한다고 발언, 중국과 유럽의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

○ 폴, 향후 10년간 에너지 부문에 수조 즈워티 투자 계획 발표(9.15)

- 투스크 총리는 에너지 자립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수조 즈워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
- 해당 재원은 폴란드 납세자·기업·국가 예산의 몫으로,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중심 투자 원칙 적용 강조
- 원전·해상풍력·국방 조달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‘애국적 기준 (patriotic dimension)’을 적용, 해외업체 배제 및 국내 참여 촉진 방침
- 투스크는 “이제는 누구도 폴란드 공공자금을 헛되이 사용하거나, 폴란드 기업을 우회할 수 없다”고 발언
-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폴란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체결하였으며, 참여 기관에는 Orlen(국영 석유기업), PGE(전력공사), PZU(폴란드 최대 보험사), PKO(폴란드 최대 은행), ARP(산업개발공사) 등 국영기업 포함
- 국유자산부 장관은 조달 정책 개편 예고, 국산 부품·기술 활용 등

‘로컬 콘텐츠’ 확대 중심의 경제 애국주의 강조

○ CPK, 올해 300억 즈워티 규모 입찰 계획 발표, 2028년까지 92건 계약 추진(9.9)

- CPK는 2025년에 3백억 즈워티(약 11.5조원), 2026년에 4백억 즈워티(약 15.4조원) 규모의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며, 2028년까지 공항 및 철도 관련 92건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
- 올해 주요 입찰 대상은 여객터미널(50억 즈워티), 공항 건설 총괄 엔지니어 계약(10억 즈워티), 철도 지선 공사(2억 즈워티) 등
- 터미널 사업 관련 참여자 16명 중 14명이 폴란드 기업으로 확인
- CPK 정책 책임자 마체이 라섹은 이번 계약들이 EU 규정을 준수해 터키·중국 등 비회원국 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
- 입찰 계획에는 2026~2028년 진행되는 공항과 철도 인프라, 물류 및 환경 사업이 포함, 계약 규모는 1백만 즈워티에서 50억 즈워티 이상
- 바르샤바-우치 간 철도 노선은 338km 고속선과 58km 일반선으로 구성되며, PKP 인터시티는 시속 320km 운행이 가능한 26대의 열차 도입 계획 중
- 의회는 시속 320km 이상의 열차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, 대통령실 산하 ‘Yes for CPK’ 측은 비용 상승과 정차역 감소 우려를 제기

○ Orlen Neptun, 스빈우이시체 해상터미널 인프라 활용 계약 체결, Baltica 2 사업 본격화(9.15)

- Orlen 산하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Orlen Neptun은 벨기에 기업 Smulders와 폴란드 스빈우이시체(Świnoujście) 해상설치 터미널 인프라 활용 계약 체결
- 본 계약은 PGE-올스테드(Ørsted)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Baltica 2 해상풍력단지(총 1.5GW) 건설을 위한 부품 저장·조립·선적 기반 인프라 확보 목적
- Smulders는 해상풍력 기초구조물(SIP, Service Inspection Platform)

제작 전문 기업으로, 폴란드 자리(Żary)에서 부품을 생산해 스빈
우이시체 터미널로 운송·조립 예정

- 터미널 내에는 조립·설치·수리 전용 생산시설도 추가 건설 예정
- Orlen Neptun은 과거 Ocean Winds와도 유사한 협력 체결,
BC-Wind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인프라 제공
- Orlen CEO Fafara는 “Smulders와의 협력은 폴란드의 해상풍력
산업에 중요한 이정표”라고 평가

○ 폴란드 첫 SMR 원전, 브워츠와베크에 건설 추진(9.4)

- Orlen과 Synthos는 소형모듈원자로(SMR)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에
도달, 공동 운영사인 OSGE 내 권한 균등화 및 미국 기술 도입에
합의
- 첫 SMR은 Orlen이 지정한 브워츠와베크(Włocławek)에 건설 예정
이며, 미국 GE 베르노바(GE Vernova)의 최신형 SMR 기술인
BWRX-300을 도입
- 양사는 OSGE 지분을 50:50으로 보유하며, 3년 주기의 순환 방식
으로 CEO와 이사회 의장 지명권 행사, 초대 이사회 의장은
Orlen, CEO는 Synthos가 지명
- 합의에는 ‘표준 설계(Standard Design)’에 대한 미국 기술 라이선스
계약 포함, 향후 추가 원자로 건설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가능
- Orlen은 2035년까지 최소 2기의 BWRX-300 SMR 구축 계획(총
0.6GW),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
- 이번 합의로 폴란드는 유럽 최초로 상업용 BWRX-300 SMR 건설에
착수, Orlen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입에 있어 선도적 입지 확보

○ PGE Energia Ciepła, 비드고슈치에서 열병합 발전 설비 준공(9.10)

- 국영 에너지 기업 PGE 산하 PGE Energia Ciepła는 비드고슈치
(Bydgoszcz) II 열병합발전소(CHP)에 총 전기용량 52.7MWe, 열
용량 52.2MWt 규모의 가스 기반 발전 설비 준공
- 가스 엔진 기반 열병합 설비 5기로 구성, 예비·피크 전원으로

70MWt 이상 용량 확보

- 2022년 착공, 신규 설비 도입으로 기존 석탄 보일러 2기 폐지 가능
- PGE 측은 “동 설비는 가스 엔진 기반 국내 최대 열병합 발전소이며, 비드고슈치 CHP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”라고 평가

○ 체코 RegioJet, 바르샤바-크라쿠프 노선 진입, PKP 인터시티 요금 인하로 대응(9.15)

- 체코 민간 철도업체 레기오젯(RegioJet)이 9월 19일부터 바르샤바-크라쿠프 노선에 첫 열차를 투입, 폴란드 철도 시장에 본격 진입
- 초기에는 하루 1회 운행하며, 연말부터 바르샤바-포즈난, 바르샤바-그단스크 노선으로 확대 예정이며, 2026년 4월까지 전면 운행 체계 구축이 목표
- 레기오젯 진입에 따라 폴란드 국영 PKP 인터시티는 요금을 최대 40% 인하해 대응, 일반열차는 70즈워티에서 45즈워티로, 고속열차 펜돌리노는 169즈워티에서 101즈워티로 인하
- 레기오젯은 기존 독점 사업자였던 PKP 인터시티에 실질적 경쟁 압력을 가하는 첫 사례로 평가됨
- 2026년 3월부터는 또 다른 체코 철도업체 리오 익스프레스(Leo Express)도 바르샤바-크라쿠프-프라하 노선에 하루 2회 운행 예정

○ 폴, 연말까지 신형 잠수함 구매를 위한 ‘Orka 사업’ 본격화(9.16)

- 투스크 총리는 발트해 우스트카 공군사격장에서 “정부는 2025년 말까지 Orka 프로그램을 통해 신형 잠수함 구매 결정을 내릴 것”이라 발표
- 국방장관 코시니악-카미시 부총리가 상정한 결의안은 구매 일정 승인 및 계약 협상 개시를 포함
- Orka 사업은 폴란드 해군의 핵심 현대화 과제로, 최소 3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목표로함
- 현재 해군은 1985년 소련제 ORP Orzeł 1척만 보유 중이며, 해당 함은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상황

- 기존 보유하던 노르웨이산 코벤급 4척은 모두 퇴역하였으며, Orzeł 퇴역 시 훈련용 잠수함조차 없어질 위기
- 폴란드 군비청에 따르면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, 한국 (2개), 프랑스, 스페인, 독일, 스웨덴, 이탈리아(각 1개)
- 기술 평가 상위 업체는 독일 티센크루프(ThyssenKrupp), 스웨덴 사브(SAAB), 이탈리아 핀칸티에리(Fincantieri)로 알려짐
- 국방부 차관 베이다는 최근 해당 3개국 조선소 직접 방문, 기술력·협력 조건 등 현장 평가 실시
- 해군은 신형 잠수함에 대해 수심 200m 이상 잠항, 외부 지원 없이 30일 작전 가능, 대수상/대잠 어뢰 발사 능력, 지상 및 내륙 공격용 미사일 탑재를 요구
- 정부는 해군 작전 요건, 자금 조달 조건, 폴란드 내 산업협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연내 최종 파트너 선정 예정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美-우크라이나, 1천억 달러 무기 거래 및 기술 이전 협상 진행(9.8)
 - 美와 우크라이나가 총 1,000억 달러 규모 무기 구매 협정을 협의 중이며,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무기 구매 대가로 자국 첨단 무기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(IP)을 미국에 이전할 계획
 - 젤렌스키 대통령은 PURL 프로그램*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무기를 이미 구매 중이며,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예산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
- * PURL(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) : 우크라이나의 전시 군수 지원을 위한 미국-나토 주도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, 우크라이나의 전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NATO 국가의 기금
- 미국은 10월 중 장거리 ERAM 순항미사일 10기를 1차 인도할 예정이며, 향후 1년 내 840기 추가 인도, 총구매량은 최대 3,350기까지 가능
 - 이외에도 첨단 타격·정찰 무인기(UAV)의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, MQ-9 리퍼 등 고성능 드론을 항공기로 재분류해 수출 허용 확대 계획

-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첨단 드론 기술 이전은 기술 유출 우려로 보류됐으나, 정책 변화 조짐
- 미국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무장 강화와 함께 우방국 무기 수출 확대 및 기술 선점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동반한 것으로 분석

○ 美-우크라이나, 광물 투자기금 첫 이사회 개최(9.3)

- 美와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 거래와 연계된 투자 기금의 첫 이사회를 9월 3일 개최하며 기금 운영을 시작
- 해당 기금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고,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경제의 외국인 투자를 통해 재건을 지원하는 목적
-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 페렐리긴은 해당 기금이 경제 성장과 재건을 위할 뿐 아니라, 광물 채굴 및 정제 등 전략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
- 이사회에서는 신규 은행 계좌 개설 승인, 4개 감독위원회 위원 임명, 기금 관리자 및 재무 고문 채용 승인 등 주요 운영 절차를 진행
- 미국 측 이사회 관리자 3명으로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,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(DFC)의 투자책임자 코너 콜먼, 부사장 겸 법률 고문 로버트 스테빈스가 임명
- 우크라이나 측 대표로는 경제·환경·농업 장관 올렉시이 소볼레프, 차관 예고르 페렐리긴, 외무부 국무서기 올렉산드르 카라세비치가 임명

○ 미콜라이우 지역, 덴마크 모델 활용한 사회주택 건설 추진(9.5)

- 덴마크 사회주택 운영사 KAB 및 우크라이나 내 덴마크 비영리 단체 UHFA(Ukrainian Homes for All)가 미콜라이우 지역 정부와 협력, 주거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덴마크식 사회주택 모델 적용 논의
- KAB는 덴마크 내 사회주택 분야에서 10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재 덴마크 전체 사회주택의 약 20%를 건설한 이력이 있음
- UHFA는 미콜라이우 지역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, ▲청년층 대상

아파트 50세대 ▲가족 단위 소형 주택 50세대 ▲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아파트 50세대 등의 계획을 제시

- UHFA는 조성된 자금이 우크라 내에서 순환·재투자되는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 개발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함

○ 우크라,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 풍력발전소 건설에 10.9백만 달러 대출 지원(9.5)

- 우크라 국영은행 Oschadbank가 Mukachevo 구역의 신설 풍력발전 회사 'Nyzhni Vorota-7'에 1,090만 달러(약 152억원)를 8년 만기로 대출 제공
- 이 중 400만 달러는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 위험분담 프로그램 자금 활용
- 'Nyzhni Vorota-7'은 2기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총 10.4MW 용량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, 발전소는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함
- 해당 법인은 신설법인으로, 별도의 운영 실적이나 담보는 없으나, 프로젝트 총괄사 'Friendly Wind Technology'의 높은 사업 신뢰도와 자체 풍력 금융모델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대출 승인
- Friendly Wind Technology는 해당 풍력발전소용 터빈의 제조 및 공급을 담당
- Nyzhni Vorota-7 프로젝트는 총 8개 풍력단지 건설 계획 중 하나로, 전체 합산 용량은 80MW 이상이며, 모두 유사한 금융 및 운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
- 이번 대출은 우크라이나 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○ DTEK, 미국 Fluence와 우크라 최대 에너지 저장 단지 구축(9.12)

- 우크라이나 DTEK 그룹과 미국의 에너지 저장 전문기업 Fluence가 공동으로 200MW 규모의 에너지 저장시설(ESS) 구축,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로 기록
- 이번 프로젝트는 키이우 및 드니프로 지역에 위치한 20~50MW급

시설 6개소를 국가 전력망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

- 건설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, 총 125백만 유로(약 180백만 원)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
- 저장 용량은 총 400MWh로, 이는 60만 가구에 2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
- DTEK 측은 이번 사업을 “우크라이나 전력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이정표”라고 평가
- Fluence는 이번 협력이 탈중앙화된 전력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,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에너지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
- Fluence는 2018년 Siemens와 AES Corporation이 공동 설립하였으며, 현재까지 약 35GWh의 ESS 및 3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구축

○ 트럼프, “전쟁 끝내려면 젤렌스키가 협상해야”(9.18)

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발언에서 “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면 ‘협상을 해야 한다’”고 밝히며, 우크라이나 측 양보 필요성을 암시
-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오그리즈코는 “늘 모호한 언어를 사용해 책임을 회피하며 구체적 약속은 하지 않는다”고 언급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대러 제재 유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한 입장 명확화를 촉구
- 한편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“전쟁이 빠르게 끝날 가능성은 낮다”며, 러시아가 휴전 대신 ‘포괄적 합의’를 고집하고 있어 협상의 여건 성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
- 구테흐스는 우크라이나는 영토 수복, 러시아는 점령지 유지라는 입장 차이가 극명해 현실적 타협이 어렵다고 덧붙임

○ 美, 우크라이나에 첫 10억 달러 규모 군사지원 승인(9.18)

- 행정부는 PURL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총 10억 달러 규모 (각 5억 달러 2건)의 첫 군사지원 패키지를 승인
- 해당 지원은 미군 재고 무기를 NATO 국가의 재정으로 제공하는 구

조로, 미국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지속가능하게 하는 목적

-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첫 지원분 승인 사실을 공식 확인
- 한편, 라트비아는 Patria 6×6 장갑차 신규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했으며, 총 42대 제공 예정
- 우크라 군사 분석가들은 프랑스가 퇴역한 Mirage 2000-5F 전투기 최대 5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
- PURL 프로그램은 미국-동맹국 간 '공동 책임' 모델로, 향후 우크라에 대한 지속적 무기 공급체제로 확대될 가능성 있음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9(210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5.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, 사업주간 거래조건 협의, 계약 연장 검토 중(~10월 말)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
- (주요동향) EPC 관련 보증 회수(107백만유로)로 중재절차 착수 예상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10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	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		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 필 향 등 건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